

# 다들 드디어 희망을

2021년 봄호 NO.145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 기획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 사업  
코로나 시대에 빛나는 돌봄의 가치  
성평등 노동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평등 동요를 발표한 베이화 작곡가  
6년간의 배분위원회 임기를 마치며

## 이슈와 현장

[고사리손기금 지원사업]  
부룬디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With Mom Project]  
세상의 모든 엄마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 한국여성재단의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장필화 글-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으로 함께 한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19 상황이 가져 온 충격과 그 후폭풍을 겪으면서 이에 적응과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과 온전히 겹쳐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택근무와 거리두기, 함께 보다는 홀로 일해야 하는 작업 환경은 새로 파악하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재단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대다수의 사업들은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이 여럿이 모여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캠페인을 시행하는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혹은 해외 방문을 포함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작년 한 해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사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대면이나 혹은 다른 창의적 방법을 찾아서 전환하는 과제 자체가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 변경 과정이 반복적이고 소모적이어서 우리 활동가들과 담당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100인 기부 릴레이의 발대식과 감사 파티도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전혀 실행하지 못했고 연말에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도 열지 못했습니다. 일년에 적어도 한 두 번씩은 인사하고 안부를 묻던 기회가 없어지니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 릴레이와 후원자 페스티벌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들은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온라인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회의실 장비를 갖추는데 유한킴벌리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계여성재단 네트워크 프로스페라(Prospera)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에 대비하는 특별 모금을 회원 재단들에게 사무국 정비를 위해 배분해 주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술적 불편함과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기부 릴레이와 후원자 페스티벌을 통해 후원해 주신 분들이 주신 큰 격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새로 시작하는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 여성 활동가와 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내딛 시기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모국으로부터 가져온 다양한 언어, 문화, 삶의 지혜를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모두와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같은 믿음에서 여성 가장이자 한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이 힘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이제 도움과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 머무르기 보다 당당하게 당사자 운동으로 거듭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활동과 업적을 토대로 새로운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더욱 적실하고 절실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운동과 여성단체,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는 여성재단을 설계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 창립 시 모금 목표액이 1,0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국여성재단의 비전을 실현해가는 기부자들의 동행을 확장하는 과제에 전념하겠습니다.



### 달들에게 희망을 2021년 봄호 NO.145

여성들이 손을 모아 새싹과 꽃을 틔우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를 담았다.

후원(한국여성재단)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https://www.facebook.com/kwomenfund)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omenfund](https://www.instagram.com/kwomenfund)

유튜브  
[www.youtube.com/user/kwomenfund](https://www.youtube.com/user/kwomenfund)

해피빈  
[happylog.naver.com/womenfund.do](http://happylog.naver.com/womenfund.do)

## Contents

### 사립문

02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기획1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 사업

04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 단체들의 노력

### 기획2 칼럼

08 코로나 시대에 빛나는 돌봄의 가치

10 성평등 노동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12 성평등 동요를 발표한 배이화 작곡가

14 6년간의 배분위원회 임기를 마치며

### 이슈와 현장

16 [고사리손기금 지원사업]

부룬디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18 [With Mom Project]

세상의 모든 엄마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 여성단체와 함께 댄다

20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 기사 취업지원]

파트너 단체 (사)여성중앙회, 한국한부모연합

### 재단소식

22 재단활동 2021년 1~3월

24 기부자명단 2021년 1~3월

26 수입과 지출 2021년 1~3월

#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 단체들의 노력 -2020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002년에 시작해 어느덧 20년째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여성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한 자유 주제(1년/2년)와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지원,  
차세대여성운동지원 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나뉘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5개 단체의 우수 사업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각 분야별 복수의 심사위원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된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평가 결과, 총 5개의 우수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현안 사업을 추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5개 단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단체의 활약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 1. 여성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 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이 만든 서사

-일다

**자유주제(1년) 분야:** 이 사업은 신진 여성 연구자들이 여성의 역사를 조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를 통해 보도하는 사업입니다. 문학, 역사, 이주, 노동 등 각 분야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숨겨진 여성의 역사를 발굴하고,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기록하여 새로운 여성 운동사를 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성 근현대사와 페미니스트 예술가의 주제를 가진 글을 통해 성평등 문제 의식을 알리는 의미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페미니즘 실천들

이 가능하도록 돕는 한편, 여성 단체 활동가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극 '모던걸타임즈' 창작진 (기사 삽입 사진 중에서)

## 2.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자유주제(2년) 분야:** 이 사업은 한국 사회에 반성매매여성 인권운동을 태동시킨 사건인 '2000-2002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사건과 그 이후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업입니다. 여성 인권 활동가와 일반 대중에게 사건과 사건의 의미, 구조적인 여성 억압과 착취 구조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착취 현실과 구조에 대한 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간 진행된 운동의 기록과 자료들을 모아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당시 활동했던 활동가, 기자, 변호사 인터뷰를 영상으로 남겨 기록의 역사성과 현장성을 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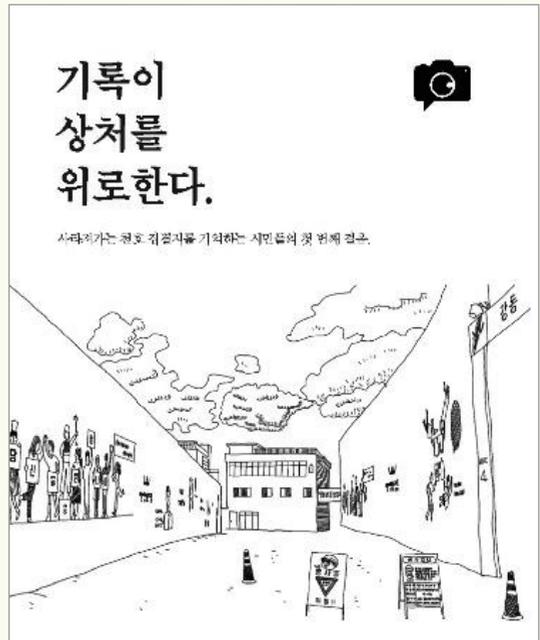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 활동가 인터뷰 현장(2020.8.7)

## 3.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 집

**자유주제(2년) 분야:** 성매매 집결지 천호동의 모습과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화한 사업입니다. 최근까지 남아있던 성매매 집결지와 여성 억압적 사회 구조를 기록으로 담아 지역 사회에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남성 중심의 폭력과 억압적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사실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적 장소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피해 여성의 이야기 치료 자료집과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을 수집한 이 사업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참여로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천호동 지역 주민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실태를 알려줌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업이었습니다.



천호동 마을기록화사업 보고서 표지

4. 2020 대학페미 네트워킹

-유니브페미

**신생여성단체 분야:** 유니브페미는 <2020 대학페미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대학 내 성평등 권리에 관한 이슈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로 확장할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 윤리규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n번방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규탄, 방지하는 지하철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매달 세미나 실시, 온라인 북토크 개최 및 전국 4개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을 넘나 들면서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 대응 및 여론 환기를 통해 사업의 성과 및 영향력을 확대한 점이 탁월하였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윤리규정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장 (2020.4.7)



**차세대여성운동 분야:** [제2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는 남성 중심적인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 연출자 혹은 여성 스태프들의 작품에 주안점을 두며 여성 영화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넓히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화제와 지역 축제의 복합을 통해 서울시 내의 새로운 콘텐츠 산업을 형성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여성 영화제가 아닌 새로운 여성 영화제가 성장함으로써 여성 영화인과 여성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친화적인 문화중심지'라는 서울의 이미지를 알리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을 형성해 여성 독립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을 충족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관객과의 대화 현장



### 다양한 주제와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구성된 2020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어 대부분의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역사와 페미니스트 예술가 서사,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기록 등 과거-현재-미래, 개인-지역사회-국가를 연결하고 여성 억압적 사회의 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성 단체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성 단체들의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은 이전보다도 치열하고 치밀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2021년의 [성평등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여성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W**

# 코로나 시대에 빛나는 돌봄의 가치

“

코로나 위기는 ‘돌봄’의 위기다.

”

기존의 돌봄 노동의 성불평등이 해소되기도 전에 여성들은 돌봄의 과중한 부담과 일터의 불안정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돌봄’의 위기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위기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기간 유예되면서, 사회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이 집과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기존의 돌봄 노동의 성불평등이 해소되기도 전에 여성들은 돌봄의 과중한 부담과 일터의 불안정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장기화한 코로나 위기를 버틸만한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

사실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새로운 형태의 돌봄 책무와 돌봄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특정 시공간에서 시간, 자원, 감정, 몸을 써 이뤄지는 돌봄은 전통적인 임금 노동

과는 달리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혹은 타자 착취적 특징을 갖는다. **코로나 시기 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돌봄의 과다함에서 오는 시간 압박의 증가뿐만 아니라, 돌봄에 내재한 유대와 친밀성, 책임감이라는 감정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아이가 집에서 보낼 시간을 수많은 과제와 할 일로 메워주거나 요양원에 계신 부모나 아픈 가족을 만나지 못해 영상통화로 접촉하는 상황 등을 돌봄 공백과 ‘위기’로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업 여성들은 전업 돌봄자로 이동하거나, 임금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약 154만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둬야 하는 상황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프리랜서형 일자로나 비정규직의 여성들의 실직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다.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또 다른 돌봄 위기는 돌봄 자원 배분의 불평등이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 계층은 팬데믹이 심화할수록 '버틸 능력'이 약화된다.** 경제력 없는 인구층은 의식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시장 논리와 공공이 결합한 교육, 보건, 의료와 같은 공적 돌봄 체제에서도 쉽게 배제된다. 배제는 쉽게 자기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런 기간이 장기화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량과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젠더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을 동시에 경험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여성들은 대면적 지지 모임 등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 돌봄의 위기를 경험한다. 20~30대 여성들의 자살과 유자녀 여성들의 자녀 방치나 동반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기획은 '돌봄'을 사회적 의제로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돌봄이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상황에서 수행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인 취약성 때문에 돌봄을 주고 받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가족, 시민, 국가와 시민 간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지는 돌봄과 자원의 교환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 이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줄곧 돌봄 사회로의 전환만이 젠더 정의를 이룩하고 계급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돌봄 노동의 시장화와 여성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사실 현재의 돌봄 위기를 초래한 것은 한국 사회가 돌봄 노동의 여성화라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지 않고, 가족 내 민주화를 통한 돌봄의 공유 또한 이뤄내

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격해 온 것처럼 국가에 의한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 노동의 시장화로 이어졌고, 이 시장은 여성들을 썩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으로 몰아넣었다. 가족 내 불평등한 돌봄 노동의 분배는 곧 돌봄 노동의 성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돌봄 사회로의 이동을 열망하면서도 돌봄의 여성화나 유급 돌봄 노동자의 '여성화'라는 트랩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의 여성화에 반대하며 모든 이가 돌봄 능력을 갖춰야 하고, 돌봄 노동 또한 젠더 위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문화되고,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돌봄은 완전한 상품이 될 수도 없고, 개인, 가족, 기업, 사회의 협력을 통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체제를 구성해 내는 것이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돌봄을 교환하는 존재이며, 돌봄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받아야 한다. 인간 돌봄자는 자기 돌봄, 타인 돌봄과 비인간 종과 생태계를 돌보는 존재이다. 누구라도 이런 돌봄을 평생 수행해야만 하고, 좋은 돌봄의 의미를 지속해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일깨운 시간이기도 하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등, '돌봄'을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쓰는 행위가 실질적인 돌봄 관계로 귀결되려면, 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의 젠더 정의는 돌봄이 모든 생명체와 사회를 살리는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W

\*이 글은 줄고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젠더와 문화 13권 2호, 2020)"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글-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성평등 노동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언니는 스포츠 방송 자막을 입히는 그래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핸드볼 경기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핸드볼 시즌 자체가 폐쇄되었다. 언니는 일자리를 잃었다. 수입이 없어졌지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회사도 아닌 PD와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처지라 PD에게 고용 관계의 확인과 해촉 증명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다.

때마침 여성가족부 장관 간담회에 언니를 데리고 갔다. 정부가 요구하는 고용 계약을 제출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그나마 회사와 계약서를 쓰는 이들이었다. 수입 감소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나마 업체 측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었다.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요청했다. 이 요구가 수용되어 언니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코로나 시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가 무엇 때문에 왜 배제되는가” 라는 질문이다.

”

그러나 가사노동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여성노동자회는 부설 조직으로 전국 가정관리사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누가 내 집으로 타인을 들일 것인가. 직격탄을 맞은 가사노동자들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어 버티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68년간 노동자에서 제외된 상태다.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코로나 시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가 무엇 때문에 왜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정규직은 그나마 고용유지 지원금의 도움을 받으며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바로 해고되었다. 비정규직에서도 층위가

갈린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비정규직은 그나마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었다. 4대보험조차 없던 비정규직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회사와 계약서라도 있고 해촉증명서라도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장의 현금이 급해 일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던 가사노동자들은 배제되었다. 위기는 공식 노동과 비공식 노동의 명암을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냈다. 좋은 일자에 있을수록 임금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기 쉽고 많은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임금이 낮고 노동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아무런 증빙도, 증명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상 가장 먼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임에도 말이다.

코로나가 여성들을 더욱 옴아매는 것은 가정으로 돌아온 돌봄 노동 때문이었다. 그나마 사회가 책임지고 있던 돌봄 노동이 급작스레 가정으로 돌아오자 전 세계는 여성을 호출했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은 먼저 버리는 카드였지만 가정으로 들어온 돌봄 노동 책임은 여성의 것이었다.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은 돌봄 노동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한 남성과 같은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이처럼 적절한 말은 없다.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계속 취약한 위치에 자리하는 것은 실상 무급 돌봄 노동 때문이다. 돌봄 노동의 전달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한다.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으로 나온 돌봄 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 당연시된다. 생계를 부양하는 것은 남성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돌봄 책임을 강화한다. 결국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은 여성의 돌봄 노동 책임 때문에 합리화되고 역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 책임은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을 불러온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위기에 처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역적 돌봄의 공공성 획득이다.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쳐도 위태롭지 않은 돌봄 체제 구축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에서 시작된다. 과밀한 돌봄 현장은 감염의 위협을 높이며 노동자의 피로도를 가중한다. 이는 돌봄 노동자가 과도한 일을 하고 있어도 방치해도 괜찮다는 노동의 저평가에서 비롯된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임금도 필요하다.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이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 몫의 돌봄 노동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동시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는 여성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의 여성전가 탓에 여성적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남성적이기 그지없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녹색뉴딜은 정보기술(IT)이나 에너지, 친환경 제조업 등 기존 남성 중심의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기의 집중적 피해자와 회복의 주체가 다르다. 남성은 각종 제도의 보호를 여성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취약하기 때문에 배제되었고, 배제됨으로써 더욱 취약해졌다.

1997년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문제를 우리는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구조적 차별과 배제는 해소해야만 다음 위기에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돌봄 노동 가치 인정과 노동시장과 돌봄에서의 성평등이어야 한다. **W**

글-배진경 한국노동자회 대표

# 나는 나답게, 누가 정해주는게 아니지

## -동요 '나는 나답게' 중에서-



배이화

아동극 뮤지컬 작곡가

아동극 뮤지컬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배이화 씨. 지난 2020년 10월 30일, 성평등 동요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를 발매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선정되어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유튜브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채널에 뮤직비디오를 4편과 9개의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 아이들이 성별 고정 관념에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동극 뮤지컬 음악을 주로 만드는 작곡가인 배이화씨.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콘텐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곡 ‘아기상어’ 가사 속에 ‘힘이 센 아빠 상어, 어여쁜 엄마 상어’를 들으며 씩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980년대 세대들이 들었던 ‘곰세 마리’ 속의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라는 가사가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성별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곡에 여전히 성별 고정 관념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관념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성평등 동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다수의 어린이 콘텐츠에도 여전히 남자 캐릭터들은 모험을 하고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반면, 여자 캐릭터들은 돌보거나, 꾸미고, 정적이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콘텐츠가 많은 실정입니다. 배이화 작곡가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아이들이 성별 고정 관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웃과 함께 만든 노래

앨범에 들어갈 주제를 선정하고 노랫말을 만들기 위해 배이화 작곡가 뿐 아니라 양육의 주체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 성별 경험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각자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겪거나 본 혐오와 불평등의 경험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미안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겠다.’라는 뜻을 모아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술가들과 양육자들이 고민하고 나눈 이야기들이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속 가사로 탄생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과 재미까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감수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웃들로부터 영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따뜻한 노래가 탄생하였습니다.

**노래를 통해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존중”**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를 들으면 따뜻함, 평화, 사랑의 마음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가장 먼저 ‘존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앨범 중 [별의 노래]는 ‘난 소중한 딱 너만큼. 너 특별해 딱 너만큼’이라고 노래해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들을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나 성향에 상관없이 나와 같은 가치를 지닌, 너만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상화 하는 무지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며 노래를 듣는 아이들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여성 예술인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에 대한 고마움 전해**

배이화 작곡가는 문학, 음악, 영화, 연극 등 대부분의 분야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문화계에서 한국여성재단이 여성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

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성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채널이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음악감독으로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배이화 작곡가.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W**

\*유튜브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노래 듣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X1Q3nRrgrY-ueTWlwiU1g>



앨범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자켓



뮤직비디오 ‘돼지 세 자매’ 한 장면

# 한국여성재단의 든든한 동반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회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의견 제시와 심사·평가를 시행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재단의 미션인 성평등사회 지향, 여성들의 활동 및 권익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열정을 다해 참여해주신 4명의 위원 임기가 종료됩니다. 지난 6년간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단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분의 소감과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Q. 6년 동안 배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배분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젠더 이슈들이 뜨겁게 제기되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여성 혐오, 미투 운동 등 이러한 이슈 속에서 재단의 역할을 고민하며 새로운 지원을 마련하고자 했던 재단 직원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이나 공간개선 사업 심사를 했던 일입니다.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직접 듣는 생생한 이야기는 배움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우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A. 2021년은 여성가족부 설립 20주년을 맞는 해이며, 여성 운동과 공공부문 사이의 평가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채로운 목소리와 열정이 모여 평등한 여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비전과 활동들이 다채롭게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이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징검다리이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6년 동안 배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 사업이 기억에 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성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기사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남성 중심의 영역에 도전하는 여성들에게 큰 응원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양육미혼모 지원 사업, Mom-Up Project’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Q. 임기를 마치는 소감과 재단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A. 재단이라는 특성상 후원처와 활동가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매개체 역할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활동가와 현장을 연결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 긴호흡’이라는 사업명처럼 여성 활동가들이 실제 사업 수행을 통해 재단과 만났던 기회와 기간들은 짧지만 활동과 성장의 긴 호흡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Q. 차세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활동 사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A. 제가 접했던 대부분의 사업은 성평등한 사회와 보다 나은 여성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 지역이나 연혁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성평등이라는 큰 목적을 공유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던 경험이 기억에 납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업은 최근 청년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활동입니다. 미성숙하고 보호의 대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편견에 맞서 주체적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든 활동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여성들의 문제 의식과 여성들 간의 연대와 페미니즘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Q. 재단이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앞으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사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재원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배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변화시키는 페미니스트 활동들이 많아지고 우리 사회의 격려와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가 꼭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때로는 도전적인 시도라는 의미로 읽히지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6년간 재단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면에 함께 하지 못한 류연규 위원님(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임기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로 재단과 함께 걷는 발걸음에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W**

## 부룬디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전 세계적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대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시아, 아프리카 해외 여아들과 청소년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하는 [고사리손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21년도 [고사리손기금 지원사업]은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부룬디의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학생에게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남아선호 사상으로 차별받는 여아들이 자신의 몸을 바로 알고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

2020~21년도 [고사리손기금 지원사업]은 한국희망재단과 함께 부룬디에 위치한 '최정숙 여자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숙 여자고등학교'는 남녀 교육의 불균형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교육 향상을 위해 건립된 부룬디 최초의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최정숙 여자고등학교'의 전교생 250명과 13명의 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신입생 100명에게 '교복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과 젠더 의식 함양을 위한 '성인지 교육'

먼저 성교육이 처음인 학생들을 위해 젠더(Gender)와 성(Sex),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 인권과 아동권리 등 기본 개념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차 성징과 몸의 변화, 월경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 교육과 함께 그룹 및 사례 토의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젠더역량강화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직접 홍보하며 적극적인 참여자 및 수행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 교내 도서관에 쉽고 재미있게 작성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의복 위생 개선 및 소속감 향상을 위한 '교복 지원' 사업

2020년 9월에는 입학한 신입생 1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교복 지원을 통해 최정숙 여고의 학생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소속감과 자긍심, 학습 집중도를 높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시간

### 자신의 삶의 방향과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학생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른 소녀들에게도 전해지고 그 소녀들로 하여금 부룬디 내 많은 여성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큰 변화가 부룬디의 차별받던 여성들의 자립과 희망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차세대 여성리더로 성장해가기를 응원합니다. **W**



## 세상의 모든 엄마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연세대여성치과의사회의 후원으로 2017년부터 양육미혼모와 그 가족들이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With Mom Projec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ith Mom Project]는 양육미혼모가정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양육용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20년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힐링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 지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연세대여성치과의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With Mom Project]는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33가정(모:33명, 자녀:37명)을 대상으로 생필품(1가정당 1회)과 양육용품(1가정당 3회)을 지원했습

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생필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감소했고, 자녀 발달에 적합한 '양육용품'을 지원해 양육과 생계의 이중고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 36개월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꼭 필요한 사업

본 사업의 특징은 5세 이상,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정부 복지 서비스는 36개월 미만 자녀에 집중되어 있어 5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With Mom Project]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연령의 자녀들에게 양육 물품을 지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원한 생활용품들

한국여성재단 [With Mom Project] 사업 담당자는 물품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원하는 물품들은 차이가 있고, 자녀 발달에 맞춘 용품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이 늘 존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21년 [With Mom Project]는 계속됩니다! **W**

### 현물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감소

양육과 생계라는 이중고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큼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녀 발달에 적합한 양육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양육의 안정화와 정서적·경제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비수도권에 위치한 가정 우선 지원

현재 정부의 대다수의 지원 사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더욱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정부가 놓치고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지원

특히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다수 가정의 양육자들이 실직을 하며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양육미혼모 가정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생필품'과 '양육용품' 지원이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시의적절한 사업이었습니다.

#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라!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신나게 달립니다



한국한부모연합 오진방 사무국장(좌)과 (사)여성중앙회 황현미 사무국장(우)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마을버스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고 성평등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년 간 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 단체 ‘(사)여성중앙회’와 ‘한국한부모연합’을 만나 보았습니다.

## [(사)여성중앙회]

### Q. [(사)여성중앙회]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여성중앙회]는 1953년에 설립된 이후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여성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시대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재단과 함께한 성과와 보람된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한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 사업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자격 및 면허 취득, 취업 지원까지 모든 과정이 처음이기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면허를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는 참여자들을 보며 참 뿌듯했

습니다. 각자 다른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마을버스기사로 만나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했습니다.

### Q. 파트너 단체로써 한국여성재단에게 고마운 점과 바라는 점 등을 말씀해 주세요.

A.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역할을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모금과 배분 사업을 통한 여성활동가,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파트너 단체로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으로 아직은 취업의 벽이 높은 운전직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한국한부모연합]

### Q. [한국한부모연합]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한국한부모연합]은 2004년에 설립해 현재는 전국 10개의 단체가 함께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권익 보호(노동권, 돌봄권, 주거권, 건강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 다문화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족기본법,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출산 반대, 시설화정책 반대, 입양특례법 재개정 등 한국사회 내에서 비혼출산 및 비혼양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 Q. 재단과 함께한 성과와 보람된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사업을 하면서 막막했던 한부모 가정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뜻깊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마음으로 지원자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한국여성재단의 직원 분들을 보며 '차이'에 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 Q. 파트너 단체로써 한국여성재단에게 고마운 점과 바라는 점 등을 말씀해 주세요.

A. 여성이라 겪는 사회적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재단의 직원 분들에게는 늘 '진심'이 느껴집니다. 미래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여성이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유한김벌리여성NGO장학사업]**

**제14기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2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제14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장학증서 전달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과정 전학기 장학금을 지원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의 행사 중 하나로 2020년 제14기 장학생의 연구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겸하여 2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실천여성학 학사운영보고, 13기·14기 장학생 연구 발표, 실천여성학 장학생 네트워크사업 보고 및 출판물 '여성이 여성에게 입파워먼트 말하다' 소개, 14기 장학증서 전달식, 졸업생 및 장학생 소감 등 다채로운 순서로 구성된 본 행사에는 장학생 13기, 14기, 15기 장학생과 유한김벌리 진재승 대표, 성공회대 김기석 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여 응원과 격려를 전하였다.



**2. 이케아코리아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에 1억원 기부**

3월 2일,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한국여성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양육미혼모 지원 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4년 연속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는 부산 양육미혼모 관련 기관들과 협력아래 선정된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양육미혼모 4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직접 가정 현장을 방문해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보다 자세히 파악,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케아 동부산점 코워커들이 참여해 홈퍼니싱 워크숍 및 컨설팅을 제공, 양육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보다 행복한 집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워크숍 진행**

3월 4일,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풀뿌리여성활동가 5명, 여성문화예술인 10명으로 총 15명이 선정되었다.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는 대전, 부산, 남해, 울산 등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을 빚는 여자들, 부산 지역의 안전하고 성평등한 창작환경 만들기, 남해군 여성주의 활동지원, 울산 지역의 여성들의 정치참여, 1인 생활밀착연구소 등 문화예술 영역부터 정치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문화예술인 분야는 여성 조현병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멘탈과 브레인 사이', 20대 비혼모 이야기를 다룬 '뭉뭉' 장편영화, 산업재해로 생식독성과 2세 질환에 관한 기록, 여성 웹툰 작가들의 창작 노동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팟캐스트, 전시, 음악, 글쓰기, 영상 등 다양한 장르들의 시도를 통해 여성주의 확장과 실천을 진행할 것이다.



#### 4. [My Future, My Business III] 네트워크 워크숍 진행

3월 5일,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JP모간이 후원하는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I] 네트워크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총 15개 업체의 이주여성 소상공인 대표, 한국JP 모간 박태진 대표,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주)MFC컨설팅 이강원 대표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선정된 15개 업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이주여성 사업체로 의식업, 교육업, 미용업, 도소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해 11월부터 6주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My Future, My Business III]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5.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 사전 워크숍 진행

3월 19일(금) 우리 재단은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활동가·단체 지원사업> 워크숍을 진행했다. 단체 분야에서 최종 선정된 5개 단체 담당자들과 활동가 분야에서 최종 선정된 4명의 활동가를 포함하여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 1부는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성 존중 사회'를 주제로 인천대학교 김정연 교수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단체의 사업 내용과 개인 분야에 선정된 이주여성 활동가가 앞으로 펼쳐 나갈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사업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본 사업은 하나금융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이주여성이 활동의 주체로 다양성 존중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6. 한국여성재단-가배울, 농촌여성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CRM 협약 체결

우리 재단은 3월 24일 사단법인 가배울(이사장 김지영)과 공익연계마케팅(CRM) 협약식을 가졌다. 공익연계마케팅은 기업이나 단체가 제조, 생산, 판매하는 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공익활동에 기부하는 마케팅이다. 협약에 따라 가배울은 향후 1년간 가배울 상품 매출액의 1%를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게 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농촌여성 경제 공동체 활성화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집계기준일: 2021.01.01.-03.31.

개인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ㄱ

강경아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도성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병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혜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란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현 고주형 고지원 고재우 고현실 고희경 공복분 공태숙 박숙희 박영선 박유선 박은숙 박지혜 박현미 박재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영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재희 권정순 권주미 권지민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철진 권현자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순 김경순 김경애A 김경애B 김경림 김경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중태 김광수 김광하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A 김동식B 김동휘 김동희 김두용 김돌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A 김명동B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혜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순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자A 김미자B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A 김민경B 김민아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욱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분 김상숙 김상환 김상훈A 김상훈B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순자 김순철 김순복 김순분 김성복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종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술희 김수경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A 김수현B 김숙경A 김숙경B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A 김순영B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연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원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자C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순 김유진A 김유진B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숙C 김인순 김인영A 김인영B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규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인 김재천 김재춘 김재현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은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중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순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A 김지현B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진희C 김차순 김창근 김창영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욱 김태주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욱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숙C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선 김혜정A 김혜정B 김혜진A 김혜진B 김홍자 김희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정D 김희진

ㄴ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A 나진희B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지는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는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ㄷ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ㄹ

류경연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영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는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솔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필 문슬기 문시윤 (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용 문재호 문정근 문진석 문혜정 문희영 민욱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결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숙 박동연 박득숙 박영수 박영숙 박명자 박영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화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상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영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수희 박순규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연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빈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래 박익수 박인아 박재식 박재신 박재욱 박정근 박정래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A 박정희B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성(NCTDREAM)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우 박지현 박지혜 박지효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A 박진우B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춘순 박 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C 박혜진 박효숙A 박효숙B 박홍희 박정애 방은혁 배기욱 배선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준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희선 변성윤 변영선 변용태 변형석

ㅅ

사오잔 서경옥 서동규 서동민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숙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하영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희A 석미희B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옥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민 성기화 성명준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암구 손영숙 손은수 손재광 손지형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성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 이 송인빈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진주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A 송혜영B 송혜윤 순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문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중은 신주진 신지열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우용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경모 안기선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세준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라 안현희 양민석 양서랑 양서영 양세경 양소영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애 엄시현 엄지연 엄태호 엄미숙 엄선숙 엄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미정 연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식 오영순 오영욱 오미향 오비로 오세훈 오우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결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상숙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도연 유명준 유무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영 유한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연 윤민호 윤말미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원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간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극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수 이능수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A 이미경B 이미란 이미숙A 이미숙B 이미영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보라 이복순 이봉찬 이상석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진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련 이수미 이수연A 이수연B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진  
 이수현A 이수현B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현  
 이순수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순A 이영순B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A 이영희B 이예빈 이육경 이육의 이육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선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정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 이재구 이종수 이종훈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혜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들 이현경 이현숙A 이현숙B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수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후재 이후재 이희선 이희원A 이희원B 이희정A 이희정B 인재근 임경숙  
 임경아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호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임혁

최영옥 최영준 최옥숙 최윤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운 최정인 최재운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사 최현주 최현호 최희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A 최희경B 추연식

**㉔**  
 탁성희

**㉕**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㉖**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미희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원경 한일순 한정연 한정옥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한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주원 허혜영 현석환 현준식  
 홍근택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옥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을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준택 홍춘희 홍현희 홍혜정 황경주  
 황근호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재 황주연 황준영 황현미 황준영

**기업/단체**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주)인포뱅크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굿باد아카데미주식회사 나눔치과의원 동산치과 몽몽스베쥬 비산치과  
 세브란스치과의원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역곡열린치과의원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울산여성성전화 위례편한치과의원 유한김빌리  
 제이피모간중권회사 책방,눈맞추다 커뮤니티컨설팅구름 팜치과의원  
 한국리츠시계(주) 한빛치과 해피빈 행복한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 호성투어

**㉗**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현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서윤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희 장애희 장연진 장영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옥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재숙  
 장절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A 장지영B 장지는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희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은주 전의령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해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권재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다희 정도균 정동환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A 정수진B 정수희 정숙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모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운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현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정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의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희경 정효지  
 정영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환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소영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미 조영한 조예진 조옥라 조운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의 조춘이 조향례 조혁중 조혈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홍식 주경은 주삼순 주선모 주영 주혜은 주혜영  
 지상구 지속자 진소미 진현진 진현재

**㉘**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민희 최상국사채 최세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소영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이름이 누락된 기부자님은  
 나눔기획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부자 명단 문의**  
**나눔기획팀 070-5129-5447**

수입



- 기업지정기부금 52.8%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8.1%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6.6%
- 특정명의기금 4.9%
- 운영후원금 20.0%
- 기타수입 7.6%

(단위: 원)

항목	내용	금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50,000,000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38,206,207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1,247,76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3,270,00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94,859,75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35,952,857
<b>총 수입</b>		<b>473,536,577</b>

지출



- 모금사업비 0.4%
- 배분사업비 104.5%
- 홍보사업비 0.3%
- 경상비 3.2%
- 시설비 1.3%
- 영업손실 -9.7%

(단위: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1,721,110
		<b>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b>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개인모금)	
		<b>2. 소외여성 empowerment사업</b>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이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494,955,765
		<b>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b>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심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교보생명)	
		<b>4. 프로스페라운영기금(프로스페라)</b>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204,000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946,347
운영비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5,966,562
		영업손실	-45,257,207
<b>총 지출</b>		<b>473,536,577</b>	



토종씨앗. 땅. 농민과 함께  
 만년된 어머니 살림 문화를 이어갑니다.

**코로나 시대,  
 무엇을 먹으며 우리 자신과 자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생물 다양성을 살리는 농사, 여성이 만년을 이어온 토종 농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세요.

\*총 매출의 1%를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합니다. (한국여성재단 기재 시 구매액의 3% 추가)

토종 · 제철 · 친환경 재료로 만든 가배울 식당의 음식을 맛보세요.

 [smartstore.naver.com/gabaewul](http://smartstore.naver.com/gabaewul)

 @사단법인 가배울

 [blog.naver.com/gabaewul](http://blog.naver.com/gabaewul)

 @gabaewul

##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를 위한 배움과 나눔의 커뮤니티 **전성기캠퍼스**

50+세대를 위한 어워즈 **라이나50+어워즈**

유쾌한 중년을 위한 헬스&라이프 매거진과 플랫폼 **전성기**

음악 동호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는 **꿈의 무대 프로젝트**

라이나생명 임직원의 나눔 실천 **라이나건강한봉사단**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터의 목소리로 전하는 **사랑있는전화**